

“뚝리면 안돼”...지역 기업들, 코로나와 ‘방역 전쟁’

광주에서 또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경제계가 ‘비상상황’에 놓였다. 광주지역 기업들을 위주로 재택근무가 확산하고 있고, 주요 공장을 비롯한 산업계 역시 직원 중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업활동 최소화·재택근무 확산**=코로나19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자 지역 기업들이 속속 재택근무에 돌입하면서 당달 아 텅 빈 사무실도 늘고 있다.

우선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광주지역본부 직원 110여 명은 지난 달 28일부터 격일제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지역본부는 본사 지침에 따라 부서 정원 절반씩 돌아가며 집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기업도 재택근무 지침을 세우고, 임산부와 만성질환

자, 자녀돌봄이 필요한 가정 위주로 재택근무를 권유하고 있다.

2만2500여 명 직원을 둔 한국전력은 나주 본사 직원들에 대해 ‘비접촉 대기조’를 편성해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부서 10~20%를 2~4개조로 만들어 1주 간격으로 돌아가며 근무하도록 한 것이다.

한전KPS는 직원 6330명의 0.64%에 해당하는 41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한전KDN은 87명이 유급 휴가 등의 형태로 자체 격리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부서원 20%가 재택근무하도록 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총 28명이 오는 5일까지 집에서 근무할 계획이다.

광주상공회의소도 오는 13일까지 부서별 최소 근무 인원 3분의 1을 제외하고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며, 금호타이어는 광주공

농협 전남·광주본부 격일제, 한전 2~4개조 편성 재택 근무 보해양조 영업직 사원 내근 독려, 금호타이어 2교대 근무 기아차 광주공장·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출입문 열화상 카메라 승객 급감 금호고속·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에 임금 삭감도

장도 사무직 3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6일까지 2교대 재택근무를 진행한다.

보해양조는 외부 활동이 잦은 영업직 사원들의 내근 근무 지침을 내리는 등 사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뚝리면 끝이다·방역강화·하리띠 풀라 맨 기업들**=산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이다. 재택근무 도입이 불가능한 제조업 특성상 코로나19 유입과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활동 밖에 대책이 없어서다.

특히 현대차 울산공장과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돼 생산 차질을 빚자 기아차 광주공장과 금호타이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등 지역 주요 산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자칫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해 타지역 사례처럼 단 하루라도 공장 가동을 멈추게 되면 그만큼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아차 광주공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각 출입문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직원 개인마다 발열체크 후 출입을 시키고 있다.

또 직원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하고, 매일 공장 전역에 방역을 하는 등 만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공장 내 경비실과 교육장, 휴게실, 식당 등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공장 출입문에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측정기를 설치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측정기를 비롯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운수업계는 하리띠를 풀라 매고 있다.

금호고속과 금호터미널은 감염병 확산에 승객이 50% 상당 급감하면서 임원 임금을 20% 삭감하고, 사무직을 비롯해 승

무사원, 기술사원 등 직원을 대상으로 단기 무급 휴직을 시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달 일반직, 운항승무원, 캐빈(객실) 승무직, 정비직 등 모든 직종을 상대로 무급 휴직 10일을 집중 실시하고, 전 직원의 급여 33%를 일괄 차감하기로 했다.

또 사장 100%, 임원 50%, 조직장 30% 등 급여도 각각 반납하기로 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타지역 동종업계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공장가동이 멈추는 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지역 산업계의 불안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월 물가 상승률

광주 1.3%, 전남 1.2%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달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물렀다. 외식·여행업 등의 부진으로 전남지역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7년 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3%와 1.2% 각각 상승했다.

채광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광주와 전남이 전년 같은 달 대비 각각 1.7%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한 해 12개월 연속 1%를 밑돌았으나, 전년도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지며 지난 1월 상승률이 광주 1.5%·전남 1.7%로 올라섰다.

다만 2월에는 1월보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이 크게 줄면서 물가 상승률이 광주 1.3%·전남 1.2%로 둔화한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광주 0.4%·전남 0.1%에 그쳤다. 전남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2년 7월(-0.3%) 이후 가장 낮았다. 광주 서비스물가 상승률도 지난 2019년 9월 0.4%를 기록한 뒤 5개월 만에 최저를 나타냈다.

서비스물가 가운데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 물가는 광주 0.9%·전남 1.4% 오르는 데 그쳤다.

상품 물가는 광주가 2.1%, 전남이 2.3% 각각 상승했다. 특히 배춧값이 광주는 98.1%, 전남은 69.2% 급등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랑나눔" 금융상품 출시 협약식

일시 : 2020. 3. 3.(화) 11:00 장소 : 중회의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광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상품 출시 협약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3일 광주도시공사, 광주신용보증재단, 기업은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랑나눔 금융상품 출시 협약'을 맺고 기업당 5000만 원까지 대출지원하고 2.4%포인트 협약감면금리 우대하기로 했다. <광주은행 제공>

군장에너지 박준영 대표 동탑산업훈장

광주국세청 모범납세자 표창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사진)은 '제54회 납세자의 날(3월3일)'을 맞아 모범납세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대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우를 갖춰 표창장을 직접 전달하는 등 의미를 기렸다고 광주지방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 '납세자의 날'에는 지역 사업자 중 군장에너지(주) 박준영 대표이사(동탑산업훈장)를 수상했으며, 산업포장은 ㈜현대



하이텍 김용구 대표이사가 받았다. 한맥 테코산업(주) 강병진 대표이사와 은북프라임(주) 남명철 대표이사는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밖에 국무총리 표창 1명,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14명, 국세청장 표창 17명,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 20명, 세무서장 표창 26명 등 총 82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국세청장 이상 수상자는 3년간, 지방국

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수상일로부터 세무조사 유예와 민원봉사실 모범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및 증명발급, 대출금리와 신용평가 우대 등 다양한 사회적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또 올해부터는 순환조사 대상자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추가했으며,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우대 혜택을 더 확대했다.

박석현 청장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감사를 받는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며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14.15 (+11.64)	↓ 금리 (국고채 3년)	1.11 (-0.02)
↓ 코스닥	626.82 (-0.84)	↑ 환율 (USD)	1195.20 (+1.50)

'업종전환 지원사업' 요건 완화·절차 개선

중진공 광주본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영위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사업전환 지원사업'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전환지원사업'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R&D보조금,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해 경쟁력 강화와 제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올해부터 '주력사업의 매출액 비중 30% 이상'이라는 신청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사업전환계획 승인권한을 중기부에서 중진공으로 일원화해 사업전환 신청 후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15일 이내로 단축시켰다.

지원대상은 업력 3년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6년, 대출한도는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이다. 대출금리는 분기별 변동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와 동일하다.

중진공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 진단 및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한다. 신청기업은 사업계획 승인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중진공 전체기준 총 280여개 중소기업에 사업전환자금 1110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600여원을 지원한다. 사업신청 상담예약 및 온라인 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중기청, 창업기업모집 연장·온라인 평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종 창업기업모집을 연장하고 평가방식을 온라인으로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예비창업패키지(일반분야) 모집은 지난 2일 마감에서 오는 16일, 창업도약패키지(사업화지원분야)는 10일에서 24일, 창업도약패키지(성장추진분

야)는 19일에서 다음달 2일로 연장한다. 사내벤처육성(분사기업분야) 모집은 18일에서 다음달 1일, 청소년 비준클 운영학교 모집은 4월 25일,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티브 활성화 사업은 12일에서 26일로 모집기간이 조정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